

의정갈등 6개월...요지부동 광주·전남 전공의

전남대병원 6.6%·조선대병원 5.6% 복귀...막대한 적자 계속 쌓여 '여·야·의·정 협의체' 반응도 싸늘...타병원 취업·개원에 수능 응시도

광주·전남 상급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복귀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에서는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임원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되고 새로운 비대위 원장이 선출되는 등 새로운 국면이 조성됐으나 광주·전남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13일 현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각각 6.6%(244명 중 16명 복귀), 5.6%

(107명 중 6명)에 머물고 있다. 양 대학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인 22명의 전공의는 지난 2월 사직서를 내고 계속 근무 중인 의료진이다. 이후 "복귀한 전공의나 복귀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없다"는 것이 양 대학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전공의 복귀가 앞으로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한 전공의는 "당초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 등 대정부 7개 요구안이 모두 다 받아들여졌을 때라고 조건부 복귀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제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여도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내년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백지화에 대한 정부의 협상의지가 없다는 점이 크다는 분석이다.

결국 광주지역 전공의들은 '각자도생'을 하고 있다. 타병원 취업, 개원 등을 하고 있고 중 일부는 14일 치러지는 2025년 수능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반의로 미용 의료 분야에 진출하거나 의료 관

련 기업, 로스쿨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전공의도 있다.

일부 전공의는 해외 의료계로 눈을 돌리는 경우 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전공의 중 일부는 USMLE(미국 의료면허 시험)를 준비해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3월에 치러질 전문의 시험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현재 의료환경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

또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과정 미이수로 전문의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다. 전공의들의 미복귀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병원들은 막대한 경영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적자가 1000억원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이후 매달 150억원에 달하는 수익감소가 발생해 11월 현재 1500억원대의 수익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년도 전남대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비의 30%를 선지급을 하고 있어 현재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남대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근근이 추가 대출 없이 버텨지만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내년 1월에는 수백억원대의 마이너스 통장을 추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남학생 확대 반발 광주여대생들 점퍼 시위 13일 광주여대 외국인 남학생 정원 확대에 반발한 광주여대생들이 교내 중앙도서관 앞 계단에 학과 점퍼와 전공서적을 올려놓았다. 중앙도서관 기둥에는 '외국인 남자 출입금지', '여대의 주인은 여대생이다' 등 학생들이 글귀를 적은 메모들이 붙어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측 지시 거부하고 부서장에 항의 이유 "GGM, 노조지회장 정직·보직해임 부당"

전남지방노동위 결정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에게 정직과 보직해임 징계를 내린 광주글로벌보토스(GGM)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지노위는 심문회의를 통해 김진태 금속노조 GGM 노조 지회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와 파트장 보직해임이 '부당징계'와 '부당 보직해임'이라고 인정했다.

또 GGM이 회사소식지에 게재한 노조 비방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배·개입 부당 노동행위라고 봤다.

다만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교섭이 이뤄지지 못해 따른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부당노

동행위 사안은 기각됐다.

노조는 "심문회의 당시 노조는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면 사건을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거부했다"면서 "지노위 결정에 따라 사측은 김 지회장에 대한 징계와 보직해임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6월 서서 일하는 라인에 설치된 간이의자를 철거하라는 사측의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상사 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 8월 GGM은 회사 소식지 '행복한 동행'을 통해 노조를 '리플리 증후군'(거짓말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칭하는 심리학 용어), '똥하우젠 증후군'(관심을 끌기 위해 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이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백일해 급증...광주시, 예방 접종·수칙 준수 당부

올들어 612명...전년보다 30배 ↑

광주시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백일해가 광주에서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예방 접종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와 동거가족 등 성인의 예방접종도 권고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백일해 환자 수는 3만332명으로 소아 청소년이 전체의 87.7%(2만6591명)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같은 기간 전년보다 30배 이상 증가한 612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4일에는 백일해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중상 악화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생후 첫 접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면역저하자, 폐 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유아 부모, 의료종사자 등 성인도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시는 소아·청소년 연령대를 중심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만큼 적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1~12세의 6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 접종률은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96.9%(DTaP 5차), 중학교 입학생 88.2%(Tdap 또는 Td 6차)다.

손소독 광주시 시 복지건강국장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며 "특히 호흡기 감염병 발생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쓰레기소각장, 주민 찬성제로 변경해야"

"토지 소유주 신청 방식 안돼"...광주 농민들 설치 백지화 촉구

광주지역 농민들이 "자원회수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토지소유주 신청 방식이 아닌 주민 찬성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광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광역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2030년 가연성 폐기물을 직매립을 금지하는 법령을 핑계로 농촌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며 "도심 소각장을 폐쇄하더니 환경과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에게 고

통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지지구 조성시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농촌 지역 피해만 가중하는 소각장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지역발전과 지원금을 내세워 광주시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각장 유지를 경쟁시켜 농민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으로 소각장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